

# 2026 카자흐스탄 진출전략

진출 환경  
시장 분석  
진출전략



# 2026 카자흐스탄 진출전략 보고서 요약본

## I. 진출 환경 분석

### 1. 경제 환경 및 전망

- 성장률 전망** : '25년 5.8% 고성장 후 '26년 경제성장률은 4.8%로 다소 둔화 전망(EIU 기준).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에도 석유생산 확대, 전략광물 개발,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로 성장 모멘텀은 유지함.
- 호재 요인** : 국가개발계획('24~'29)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,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, 건설 부문 확장, 텡기즈(Tengiz) 유전 확장에 따른 석유 생산량 증가 등임.
- 부진 요인** : 급격한 텡게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(16.5% → 18%), '26년 세제 개편(부가세 인상 등)으로 인한 단기적 내수 위축 등임.

###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

주요지표	단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(추정)	2026년(전망)
인구	백만 명	19.50	19.76	20.13	20.80	21.10
명목 GDP	십억 달러	224.9	260.5	280.7	281.2	313.3
실질 성장률	%	3.2	5.1	4.8	5.8	4.8
소비자물가 상승률	%	14.9	7.7	8.7	11.0	9.8
총 수출	십억 달러	85.6	80.3	78.8	81.1	84.8
총 수입	십억 달러	50.6	60.4	61.2	64.0	67.4
무역수지	십억 달러	35.0	19.8	17.6	17.1	17.3
환율(연평균)	KZT/USD	460.98	456.17	468.96	517.32	511.23

### 2. 정치 및 정책 환경

- 정치적 안정성** : 집권 여당 아마нат(Amanat)의 하원 장악 및 토카예프 대통령의 7년 단임제 임기 확보('29년까지)로 강력한 통치 체제 및 집권 안정기 진입함.
- 외교 노선** : 러시아·중국·서방 간 균형 다변화 외교 지향함. EU와 핵심원자재 파트너십 체결, 중국 일대일로(BRI) 연계 물류 실익 극대화 추진함.
- 2029 국가개발계획** : 중기 전략으로 경제 기반 강화(에너지·제조), 신성장(물류·디지털), 삶의 질 개선 등 4대 정책 추진함. 국가 인프라 계획('24~'29)과 연계하여 40조 텡게 규모의 발전소 현대화, 교통, 상하수도 등 204개 프로젝트 추진함.

## II. 주요 경제·산업 이슈 Pick

### 1. 전력 부족 및 최초 원전 건설 착수

- **원전 추진 배경** : 구조적 전력 부족 심화('24년 20억 kWh → '31년 70억 kWh 부족 예상)로 러시아 전력 수입 의존도 완화 필요성 대두됨. 국민투표 가결에 따라 원전 건설 본격 착수함.
- **컨소시엄 현황** : '25년 6월 국제 컨소시엄 주관사로 러시아 Rosatom(1호기), 중국 CNNC(2, 3호기) 선정함. (프랑스 EDF, 한국 KHNP는 공동 3위 기록). 울켄 지역을 최초 원전 부지로 확정함.
- **진출 기회 및 리스크** : 우라늄 채굴, 기자재 공급, 운영·안전관리 전 주기 참여 기회 발생함. 다만, 법·규제 미비 및 대러 제재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리스크 상존함. 기자재 현지화 유치 중이나 시장 규모 한계 고려 필요함.

### 2. 중간 회랑(Trans-Caspian 루트) 개발 및 물류 허브 부상

- **중간 회랑 동향** : 러-우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 경유 북부 루트 불확실성 증가함에 따라 대안 노선으로 급부상함. (경로: 중국 서부→카자흐스탄→카스피해→아제르바이잔→조지아→유럽). '24년 기준 카자흐스탄 경유 철도 화물량은 전년 대비 63% 증가한 410만 톤 기록함.
- **국제 협력** : 중국 일대일로(BRI) 및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연계 추진함. 세계은행(IBRD) 및 AIIB가 6.5억 달러 규모 도로 인프라 승인, 유럽투자은행(EIB)이 카자흐 개발은행에 2억 유로 대출 지원함.
- **기회 및 제약 요인** : 스마트 물류, 디지털 솔루션 시장 수요 확대됨. 단, 철도-해상-도로 다중 모달 구조에 따른 환적 비용 상승 및 항만 처리 능력 한계, 남카프카스 지역 불안정성이 제약 리스크임.

### 3. 국가 주도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

- **추진 아젠다** : 대통령 지시로 3년 내 완전한 디지털 국가 전환 및 전 분야 AI 도입 추진함. 부총리급 수장의 인공지능·디지털개발부 신설 추진 및 디지털 도시(Alatau City), 조세행정 디지털화 추진함.
- **분야별 기회** : GovTech(전자정부 고도화), 금융(핀테크 솔루션, QR 결제), 교통·물류(스마트 시티 인프라 고도화) 등에서 기회 유망함.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기반 미비는 규제 리스크 요인임.

### 4. 슈퍼앱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

- **시장 현황** : '24 소매 전자상거래 규모 약 3조 4,390억 텡게로 전년 대비 42% 증가함. 온라인 구매 건수는 87% 증가한 1억 6,200만 건 달함. 소매 거래 중 전자상거래 비중 '24년 15.3% 도달, '30년까지 20% 확대 목표함.
- **플랫폼 특징** : 전체 이커머스의 91%가 마켓플레이스 형태이며, 현지 슈퍼앱 플랫폼(Kaspi.kz, Halyk 등)이 거래액의 65% 독점 점유함. 단순 쇼핑을 넘어 은행, 배달, 여행 결제를 연계한 형태 중심임.

### III. 시장 분석 및 주요 산업 동향

#### 1. 소비 패턴 및 거시 소비 특징

- **소비 집중 구조** : 중앙아 5개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(GDP 2,807억 달러)임.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명목 소득 증가 및 건조한 가계 신용 확대로 소비지출 비중이 높게 유지되나,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 민감도가 매우 높음.
- **가계 지출 구조적 한계** : 가계 총지출의 90% 이상이 소비지출에 편중되어 있으며, 필수재인 식품 비중이 50%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신흥국형 소비 패턴임. 특히 대출 상환 비중(6.5%) 가중 및 실질 구매력 정체로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리스크가 내재함.
- **유통 채널의 다변화** : 대도시(알마티, 아스타나)를 중심으로 전통 시장(바자르)에서 현대식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(SSM)으로 채널 전환 가속화됨.

#### 2. 주요 산업별 생산 구조 및 세부 동향

- **산업 이중 구조 고착화** : 전통적인 광업·채굴업 및 제조업 중심의 원자재 자원 의존형 구조를 지속하는 동시에, 최근 도소매, 건설, 운송 등 서비스·내수 산업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함.
- **건설 산업의 급성장** : 정부의 국가 인프라 현대화 및 주거 개발 확대 정책에 힘입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, 내수 다변화의 신성장 축으로 완전히 부상함.
- **제조업 다변화 추진** : 단순 가공에서 벗어나 자동차 조립, 금속 가공, 화학 공업 분야의 현지 생산(Localization)을 장려하고 있으나, 원부자재의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는 개선 과제임.

#### 최근 주요 산업별 GDP 생산 비중 추이 (단위: %)

산업 분야	2023년 비중	2024년 비중	2025년 상반기 비중
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업	18.2	19.0	16.4
광업 및 채굴업	13.0	13.4	12.0
제조업	12.4	12.2	12.8
부동산업	7.5	8.5	8.3
운송 및 보관업	5.6	6.0	6.8
건설업	5.6	5.7	5.3

#### 3. 외국인 직접투자(FDI) 및 한국 기업 진출 동향

- **글로벌 투자국 지형** : '24년 기준 10대 투자국은 러시아(40.5억 달러), 네덜란드(38.1억 달러), 대한민국(12.2억 달러) 순임. 러시아는 對러 제재 이후 서방 진출 차단에 대응하여 중앙아 전진기지 구축 목적으로 기업 이전을 감행,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함.
- **대한민국 투자 다변화** :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대 핵심 투자국으로 기존 광물 자원 개발 위주에서 제조업, 금융, 유통/건설로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 중임. '23년 러시아 대체 투자처 부상 후 '24년 1억 5,700만 달러로 제조업 투자액 대폭 증가함. 유통 B사를 활용한 진출 및 담배 제조 K사의 '25년 알마티 공장 준공 등 대형 현지화 모범 사례가 지속 축적됨.
- **투자 진입 장벽 및 리스크** : 정부 관료주의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조세 제도의 빈번한 변경(불안정성), 텅게화 환율 변동성 리스크가 상존함.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 특성상 해상운송이 불가능하여 물류 프로세스가 복잡하며, 제조업 핵심 부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및 숙련 노동력 부족이 장기적 걸림돌임.

## IV. 진출 전략

### 1. PEST / SWOT 종합 분석 요약

- **강점/기회(SO)**: 한국 제품의 고품질 이미지 및 한류 인지도 적극 활용함. 기술력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에너지, 디지털 전환,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직접 참여 확대 추진함.
- **약점/위협(WT)**: 복잡한 행정 및 내륙국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파트너십 기반 합작법인(JV) 설립 및 현지 생산·가공 거점 구축 고려 필요함. 중국·러시아 등 경쟁국의 강력한 시장 장악력 대응 차별화 분별력 확보 요망됨.

### 2. 주요 유망 분야별 진출전략

- **전자상거래 및 소비재**: Kaspi 등 현지 슈퍼앱 마켓플레이스 입점 조기 추진 필요함. 바이어 세분화 대응(기능성 프리미엄 라인 vs 가성비 대용량 구성) 및 SNS(틱톡·인스타) 바이럴 마케팅 집중 투자 요망됨. 식품의 경우 편의점망 활용 및 할랄 인증을 통한 판로 확대 유효함.
- **자동차 부품**: 러-우 사태 이후 공급망 재편 기회 활용함. 현지 완성차 조립공장(현대·기아) 생산 비율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부품 조립공장 동반 진출 및 AS용 교체 부품 시장 다변화 추진함.
- **에너지 및 인프라 (건설/엔지니어링)**: '35년까지 26GW 신규 발전 설비 도입 계획 연계함. 설계·조달·시공(EPC) 일괄 제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결합 패키지 제공 시 경쟁력 우위 점함. 다자개발은행(EBRD, WB, ADB) 파이낸싱 프로젝트의 외부 독립 감리 및 엔지니어링 검증 서비스 참여 기회 적극 포착 요망됨.



화장품

- 선정사유**
  - '24년 카자흐스탄 화장품류 수입 규모는 6억 7,330만 달러이며,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
  - 카자흐스탄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'24년 수입은 전년 대비 10.3% 증가한 2,540만 달러 규모로 전체의 3.8%를 차지
  - 경제 성장과 중산층 확대로 프리미엄 제품과 중저가 제품 수요가 동시에 고르게 성장
  - 대형 화장품 유통망을 통한 구매뿐만 아니라 소매상을 통한 구매 또한 활발하며, 온라인 구매 비율이 점차 확대 중으로 우리 기업 진출에 용이
- 경쟁동향**
  - '24년 기준 10대 수입국은 러시아, 프랑스, 중국, 미국, 벨라루스, 이탈리아, 폴란드, 독일, 대한민국, 튀르키예
  - 프랑스, 미국, 이탈리아로부터는 프리미엄 제품을, 러시아, 중국, 벨라루스, 튀르키예로부터 저가 제품 수입
- 진출방안**
  - 등록/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서 발급은 현지어로만 가능하므로 현지 에이전트 활용 필요
  - 제품 및 바이어 유형별 맞춤 전략을 통한 시장 공략
  - 중앙아시아 최대 뷰티 전시회인 'Central Asia Beauty Expo' 활용

건강기능식품

- 선정사유**
  - 열악한 국립병원 시설, 오랜 대기시간, 잦은 오진 등으로 가벼운 질환은 자가치료를 선호하며,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제 수요가 높음
  - 비타민, 면역강화제, 심혈관 질환 예방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 수요 多
  - 대부분의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수입에 의존하며 '24년 기준 건강보조식품 수입은 55.5% 증가한 4억 2,710만 달러 규모를 기록
  - '24년 기준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건강보조식품 수출은 860만 달러로 전체 7위
- 경쟁동향**
  - '24년 기준 10대 수입국은 러시아, 스페인, 미국, 이탈리아, 독일, 프랑스, 대한민국, 헝가리, 튀르키예, 중국
- 진출방안**
  - 등록·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서 발급은 현지어로만 가능하므로 현지 에이전트 활용 필요
  - 중앙아시아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인 'KIHE'와 식품 전시회인 'FoodExpo Qazaqstan' 활용
  - 현지 파트너 협업, SNS 활용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현지 인지도 확보 병행 필요

## 의료기기

- 선정사유**
- 의료 서비스 발전, 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'23~'27년 의료개발 프로그램 진행
  - '25~'27년 보건의료분야 배정 예산은 약 7조 6,000억 텡게(약 152억 달러)로 국가 투자 활발
  -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수입 시장 규모는 '24년 기준 9억 2,737만 달러 기록
  -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은 4,049만 달러로 전체 6위이며, 시장 점유율은 4.37%,
  - 현지 제조 기반 미비로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약 90%를 수입에 의존
  - 초음파 기계, X-Ray, CT촬영기, MRI 등 진단용 장비와 치과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음.
- 경쟁동향**
- '24년 기준 10대 수입국은 중국, 독일, 미국, 일본, 러시아, 대한민국, 스위스, 아일랜드, 프랑스, 영국
  - 한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모두 보유해 미국, 일본 및 유럽산 의료기기와 경쟁 중
- 진출방안**
- 의료기기 판매·수출을 위해서는 등록·인증 절차 필수
  - 등록·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현지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와 협업은 필수
  - 단순 기기 판매를 넘어 현지 의료기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 기술팀의 유지보수 지원을 통한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필요

## 치과 기자재

- 선정사유**
-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, 가처분소득 상승, 미용치과의 인기 및 수요 증가, 시중 은행의 할부 결제 서비스 도입 등으로 다소 비싼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, 치아교정 치료가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 수요 급증
  - '24년 카자흐스탄의 치과 기자재 수입 규모는 1,811만 달러이고, 한국은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 규모는 508만 달러, 시장 점유율은 28.1%를 기록
  - 특히 임플란트 시장의 경우 좋은 품질과 적절한 가격으로 한국산 제품이 시장의 약 60%를 점유
- 경쟁동향**
- '24년 기준 10대 수입국은 한국, 독일, 중국, 덴마크, 스위스, 러시아, 일본, 오스트리아, 리히텐슈타인, 미국
  - '24년 기준 한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30.3% 증가한 508만 달러이며,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
- 진출방안**
- 현지 유통사 및 대형 치과병원뿐만 아니라,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중소 규모 개인 치과병원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마케팅을 집중 전개
  - 한국산 치과 기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,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 및 제품 홍보 행사를 병행 추진
  - 중앙아시아 최대 치과 기자재 전시회(CADEX)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내 인지도 확보

## 중고차 및 자동차 부품

- 선정사유**
- '24년 기준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183만 6,000대 중 약 80.9%(약 148만 7,000대)가 중고차로 구성
  - 자국 내 자동차 및 부품의 생산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높아 대규모 중고차 및 부품 시장 형성
  - 지속적인 중고차 수요에 따라 A/S 부품 수입 수요도 동반 증가
  - 한국산 중고차의 높은 선호도 지속
    - (HYUNDAI) Accent, Elantra, Sonata, Santafe, Tucson
    - (KIA) Picanto, Rio, Cerato, K5, Avante, Sportage
    - (DAEWOO) Nexia, Lanos, Matiz
- 경쟁동향**
- 자동차 부품류(HS Code 8708) 10대 수입국은 한국, 중국,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독일, 일본, 튀르키예, 체코, 벨라루스, 미국
  -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산 신차(전기차 및 내연기관차) 판매 확대가 중고차 시장 수요 위축에 영향
- 진출방안**
- 현지 파트너 및 유통업체 발굴 필요
  - EAC 인증을 비롯한 세금 납부 등은 통상적으로 현지 업체가 담당하고, 인증 획득 등 서류 준비 기간은 약 1~6개월 소요

## 전력기자재

- 선정사유**
-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력 부족 해소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 2035 전력산업 발전 실행계획에 따라 발전소 현대화, 확장, 재건 및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
  - 자국 내 생산 기반 미비로 관련 기자재 수입 불가피
  - '24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전력기자재(HS Code 8501, 8502, 8504, 8535-8537, 8544, 8546, 8547) 수입 규모는 1억 524만 달러를 기록
- 경쟁동향**
- 주요 수입국은 중국, 러시아, 미국, 독일, 프랑스, 한국, 이탈리아, 체코, 인도, 튀르키예이며,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중국, 러시아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
- 진출방안**
- 프로젝트를 보유한 발전사 및 진출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마케팅 전개, 또는 정부 간 프로젝트를 통한 시장 진입 추진
  - 인증과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대응

## 첨부 2

# 수출 유망 품목(서비스)



### 핀테크 솔루션

- 선정사유**
  -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급증과 비현금 결제 확대에 힘입어 금융 서비스 디지털화와 핀테크 도입 가속화
  - '25년 9월 국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·디지털개발부 신설과 국가 디지털 자산펀드(전략적 크립토 준비금) 설립이 지시되어, 관련 산업의 성장 환경이 강화
  - 정부는 Digital Kazakhstan(국가 디지털 전환), AIFC(핀테크 규제·자본시장 허브), Astana Hub(국가 디지털 테크노파크)를 축으로 디지털 경제·핀테크 인프라 구축을 지원
  - 현지 핀테크 생태계는 금융앱-전자상거래 결합형 슈퍼앱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중심으로 활성화
  - 은행 간 QR 공동망 시범, 디지털 뱅킹 플랫폼, 블록체인·디지털자산 제도화 등 전자결제·디지털 금융 기술이 단계적으로 확산
- 경쟁동향**
  - 하드웨어 및 전자제품 수입은 중국, 러시아, 베트남, 터키, 대만 등에서 진행하며 클라우드·소프트웨어는 러시아, 미국, 중국을 통해 수입
- 진출방안**
  - 금융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강한 분야로 현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및 핀테크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선행
  - AIFC(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) 활용, 핀테크·디지털자산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핏 검증 선행을 통한 시장 진입
  - 현지 통신사, 은행,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 도모

### E-Health(원격의료)

- 선정사유**
  -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보건 디지털화의 핵심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AI·AR 적용을 공식 추진
  - '25년 9월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은 보건 의료 디지털 전환 가속 및 AI 기반 의료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시했으며, 보건부의 원격의료(온라인 진료) 파일럿이 병행되며 의료 접근성 확대가 추진 중
  - 민간 병원과 벤더는 EMR/HIS·모바일 앱·원격상담을 확대 중이며, 보건부에 따르면 민간 벤더 제공 의료 모바일 앱 이용자는 200만 명을 상회
- 경쟁동향**
  - 카자흐스탄 원격의료 시장은 공공·민간 부문이 병행 성장하는 구조이며, 솔루션 조달은 미국·프랑스·중국·러시아 등으로 다변화 추세
- 진출방안**
  -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병원·의사 레퍼런스를 마케팅 자산으로 활용, 초기 신뢰도와 채택률 제고
  - 공공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고, 현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 조건을 선충족하여 통합형 제안을 통한 수주 가능성 제고
  - 현지 파트너(병원체인, 보험사, 플랫폼)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도모
  -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관련 규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

## 스마트물류솔루션

- 선정사유**
- 정부는 'Nurly Zhol 2020~2025'를 통해 도로·철도 등 국가 물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, 유라시아(중간 회랑) 물류 허브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 집행 중
  - 러-우 사태 이후 중간 회랑 경우 물동량은 '21년 84만 톤에서 '24년 4,500만 톤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카자흐스탄 경유 트래픽이 구조적으로 확대
  -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중간 회랑 및 국경·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사업 협력 활발
- 경쟁동향**
- 물류 자동화 설비·솔루션 도입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나, 중국·유럽·일본 업체의 프로젝트별 납품 사례확인
- 진출방안**
- 글로벌 설비사와 협업하여 인근국을 통해 장비를 조달하는 등 물류비 및 설비비용 절감 필요
  -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 전략 필요

##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

- 선정사유**
-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력 부족 해소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2035 전력산업 발전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며, '35년까지 최소 26GW(이 중 신재생 8.4GW) 신규 설비 도입을 확정·집행하고 있음. 이에 따라 발전소 신증설·개보수, 송·배전망 확충, 친환경 설계 및 발주에 따른 EPC·FS·오너스 엔지니어링 수요가 확대될 전망
  - 국가 인프라 투자와 연계하여 고속도로 및 철도망 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(누를리 졸 프로그램 등), 중장기적으로 도로·교량·터널·ITS·공항 분야 전반에서 설계·시공관리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 - 국제개발금융(EBRD·ADB·WB·IsDB) 연계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조달·환경·사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 엔지니어링 서비스 참여 필요성이 한층 높아짐
- 경쟁동향**
- 경제, 정치,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·중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두드러지며, 튀르키예 및 유럽 기업 또한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
- 진출방안**
- 발전소 프로젝트를 보유한 현지 발전사 및 진출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 전개, 또는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시장 진입이 요구됨
  -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,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며 리스크를 분산
  - 조달·인허가 절차의 변동성과 행정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

# 수출유망국가, KEPI로 확인하세요

# KOTRA 수출유망지수

12가지의 수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 
국가별 수출 유망도를 측정한 시장 분석 도구

카자흐스탄 수출유망품목 보고서

## 정량적 지표

객관적인 점수로  
유망 시장을 판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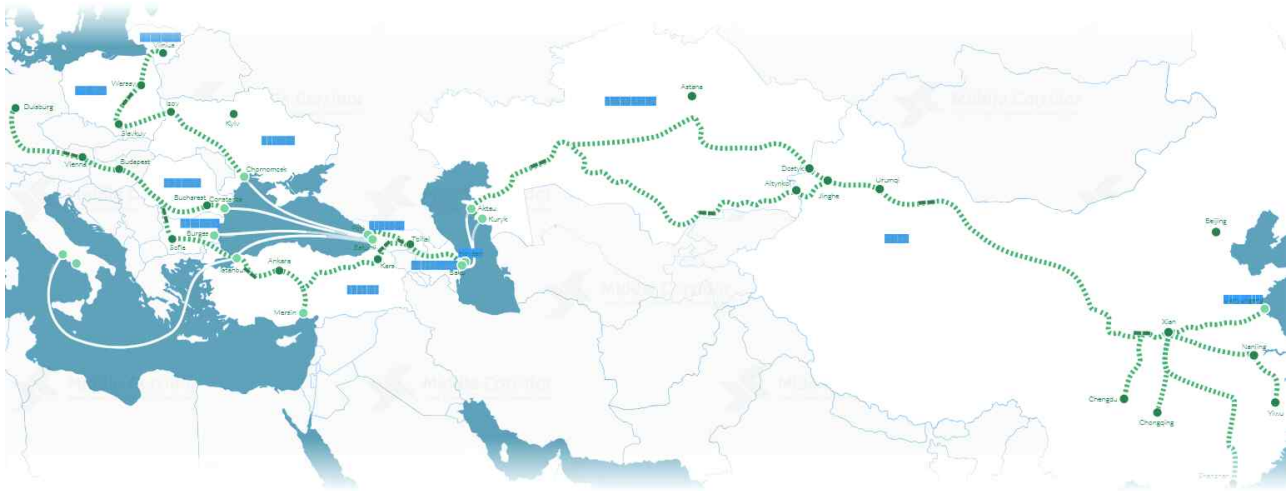
## 다양한 분류

HS 코드 외에도  
산업별 조회 가능

## 수출 빅데이터

수출기업 관심도,  
현지 정성평가 반영

## 트랜스 카스피 국제 운송로(TITR)의 핵심 거점, 카자흐스탄



### 1. 국가 개요

국명	카자흐스탄	Republic of Kazakhstan
국가원수	카심-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	2019년 6월 취임,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
면적	2,724,900km <sup>2</sup>	세계 9위, 한국의 27배
인구	20,370,672명 ('25.06)	세계 64위 수준
주요 도시	아스타나(수도)	알마티(경제 중심지), 쉘켄트(남부, 제3의 도시)
민족	카자흐인(71.3%)	러시아인(14.6%), 우즈베크인(3.3%)
공용어	카자흐어(공식어/인구의 80.1%)	러시아어(공용어/인구의 83.7%)
종교	이슬람교(국교X/인구의 69.3%)	기독교(인구의 17.2%)
기후	대륙성 기후	사계절 뚜렷, 건조
화폐	텡게	Tenge(KZT)
연령 구조	중위연령 약 31.6세	0~14세(29%), 15~64세(62%), 65세 이상(9%)

### 2. 주요 경제 지표

경제성장률	4.6%('26.06, IMF)	원유 생산량 감소를 서비스·제조업 분야로 상쇄
GDP	1인당 명목 \$13,511('25)	총 GDP=US \$2,816억('25)
물가 상승률	연 10.7%('26.06, IMF)	체감 물가는 한국의 약 50~60% 수준
금리	17%(기준 금리)	연 19.12%(은행 대출금리)
환율	488.44(USD/KZT)	'25.07에 역대 최고치 549.90
실업률	4.6%('25 3분기)	수 분기 동안 안정적인 수준 유지
산업 구조 (GDP 비중)	에너지 및 광업(16%), 제조업(12.4%), 건설업(8%), 농업(4%)	자원 의존적인 경제 구조(국가 전체 수출의 52%가 원유), 에너지 의존도 낮추기 위해 카자흐스탄 2050 전략에 따라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중
수출금액지수 (Export Value Index)	170.9('23/WB)	(2015=100)

### 3. 무역 현황

- 주요 수출국('25) : 이탈리아(19.7%), 중국(19.2%), 러시아(10.3%), 네덜란드(7.6%)
- 주요 수입국('25) : 러시아(29.7%), 중국(29.3%), 독일(4.8%), 미국(3.6%), 한국(3.4%)

(단위: US \$억)

	'23	'24	'25	주요 교역품
수출	802.2	782.8	773.3	광물성 제품, 금속제품, 동·식물성 제품 등
수입	600.5	608.0	662.8	기계장비, 화학·산업 제품, 금속제품 등
수지	201.7	174.8	110.5	

- 카자흐스탄의 대중양아시아 교역은 2025년 총 88억 달러(약 14.4% 증가)를 기록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으며, 그중 수출은 66억 달러(21.7% 증가)

### 4. 한국과의 교역 현황

- '25 기준 수출 대상국 중 35위, 수입 대상국 중 44위의 교역 상대국

(단위: US \$억)

	'23	'24	'25	주요 교역품
수출	20	23	30	수송기계, 정밀화학제품, 산업용전자제품 등
수입	36	13	14	광물성연료, 철강제품, 비철금속제품 등
수지	16	10	16	

### 5. 카자흐스탄 진출 당위성

#### (1)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강화

-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5위, 지역 내 타 국가 대비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(러시아 28위, 중국 31위)
- 투자 활성화 위해 '투르크 투자기금'을 활용한 산업 단지 및 생산 클러스터 조성 방안 제안됨
- 2024년 신규 프로젝트 기준 총 157억 달러 규모의 FDI 유치(전년 대비 88% 증가), 카타르와 UAE 등 중동 자본의 대규모 투자 유치

#### (2)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새 축

- 우라늄 생산 세계 1위,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의 자원 강국
- 한국 정부, 중동 리스크와 대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해 2026년 6월 '제11차 경제공동위'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최우선 강화 합의

#### (3) K-브랜드의 프리미엄화

- 카자흐스탄 신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점유율 약 35%에 육박, 믿고 쓰는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
- 한국산 식품 수출 최근 38% 성장, K-푸드와 프랜차이즈 영향력 급증

#### (4) 중앙아시아 내 디지털 및 AI 전환의 선두주자

- 2026년 중앙아시아 최초로 AI 기본법 시행,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 가동하는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 중
-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주목 받는 중

#### (5) 지정학적 물류 허브

- 러시아와 중동 우회하여 중국-유럽 잇는 대안 무역로(트랜스카스피 국제 운송로, TITR) 핵심 거점
- 서방과 비서방권 사이에서 실리주의 균형 외교를 통해 제재 리스크 최소화 중
- TITR 물동량 최근 5년간 3배 증가, 2030년까지 통과 물동량 30만 컨테이너 목표 제시
- 물류 효율성 높이기 위해 '다르바자-막타랄' 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중
- 중국 충칭-독일행 직통 화물열차가 카자흐스탄 경유, 해상 대비 약 30% 빠른 신규 물류 루트로 주목

1. 기계류

HS 842489 (기타 액체·분말 분사용 기기, 반도체 제조용)

**HS 842489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8.77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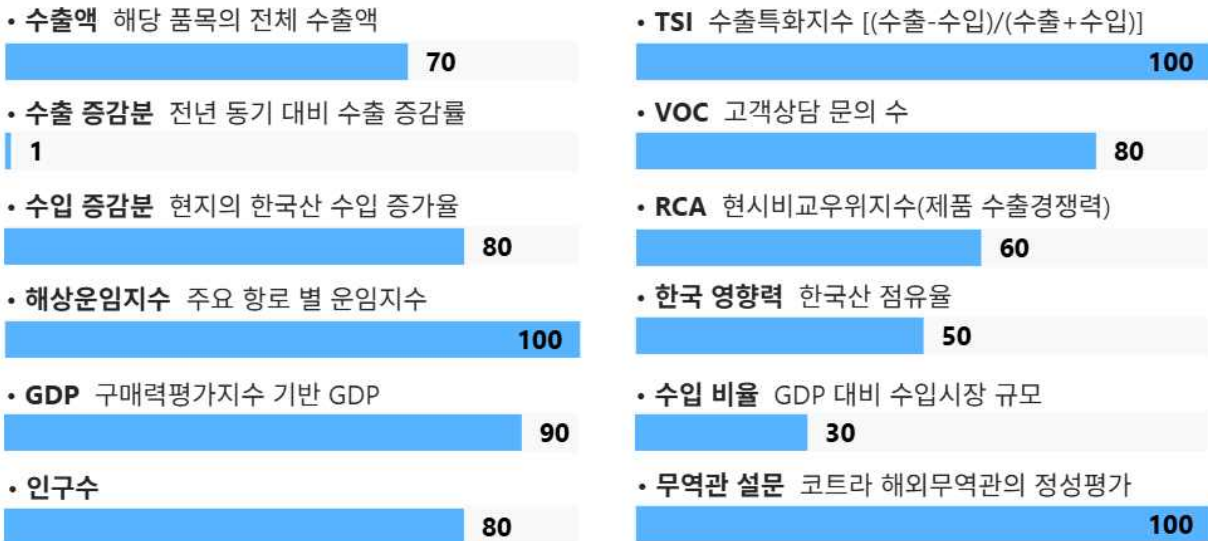
HS 847989 (기타 산업용 로봇 등, 공기청정기·프레스·압출기·차량용 기계 등)

**HS 847989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8.14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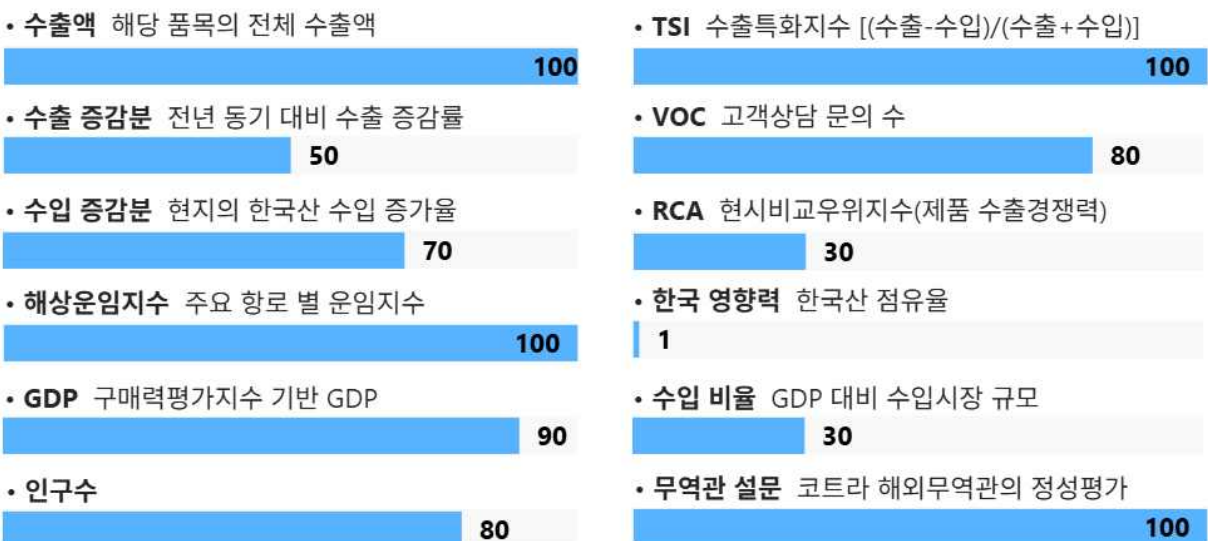
HS 842839 (기타 엘리베이터, 컨베이어 등)

**HS 842839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7.90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HS 851521 (용접기)

**HS 851521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7.80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HS 842952 (메커니컬셔블, 엑스커베이터, 블도저 류)

**HS 842952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7.27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842490 (분사용 스프레이건, 분무용 기기 등)

**HS 842490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6.44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2. 소비재

HS 330499 (기타 기초 화장품)

**HS 330499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99.72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121221 (김, 식용 해초류)

**HS 121221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99.33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190230 (라면, 기타 면류)

**HS 190230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9.05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330790 (마스크팩, 기타 화장용품)

**HS 330790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7.23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560122 (워딩, 인조섬유 제품)

**HS 560122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6.97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200899 (보존 처리된 과일·견과류, 조미김 등)

**HS 200899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6.82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### 3. 의료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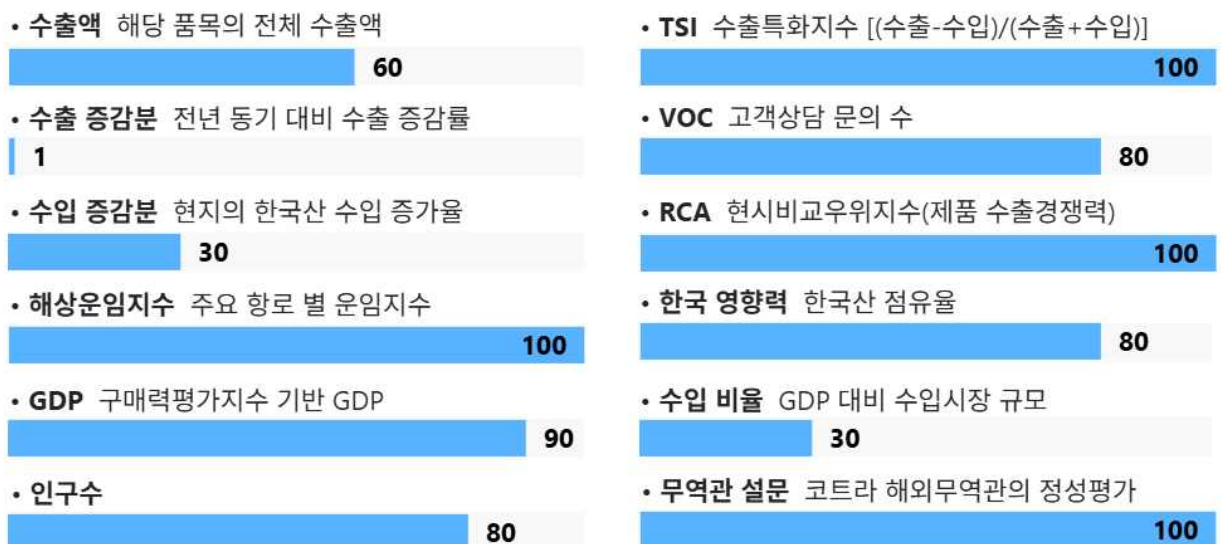
HS 902129 (임플란트류 치과용품)

**HS 902129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99.52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902213 (엑스선 기기)

**HS 902213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98.72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902290 (엑스선 발생기, 사진용 기기 등)

**HS 902290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8.55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901849 (치과용 의료기기)

**HS 901849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6.80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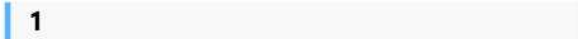
HS 901812 (초음파 영상진단기)

**HS 901812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**  
**96.79** 점으로, **높음** 에 해당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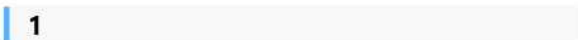
• 수출액 해당 품목의 전체 수출액



• 수출 증감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



• 수입 증감분 현지의 한국산 수입 증가율



• 해상운임지수 주요 항로 별 운임지수



• GDP 구매력평가지수 기반 GDP



• 인구수



• TSI 수출특화지수 [(수출-수입)/(수출+수입)]



• VOC 고객상담 문의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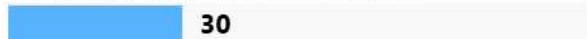
• RCA 현시비교우위지수(제품 수출경쟁력)



• 한국 영향력 한국산 점유율



• 수입 비율 GDP 대비 수입시장 규모



• 무역관 설문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성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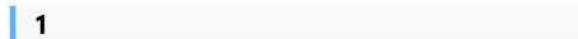
HS 300640 (의료용 충전제, 시멘트 등)

**HS 300640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**  
**92.17** 점으로, **높음** 에 해당합니다.

• 수출액 해당 품목의 전체 수출액



• 수출 증감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



• 수입 증감분 현지의 한국산 수입 증가율



• 해상운임지수 주요 항로 별 운임지수



• GDP 구매력평가지수 기반 GDP



• 인구수



• TSI 수출특화지수 [(수출-수입)/(수출+수입)]



• VOC 고객상담 문의 수



• RCA 현시비교우위지수(제품 수출경쟁력)



• 한국 영향력 한국산 점유율



• 수입 비율 GDP 대비 수입시장 규모



• 무역관 설문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성평가



#### 4. 자동차 & 차 부품

HS 870899 (새시, 그 부분품)

**HS 870899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9.60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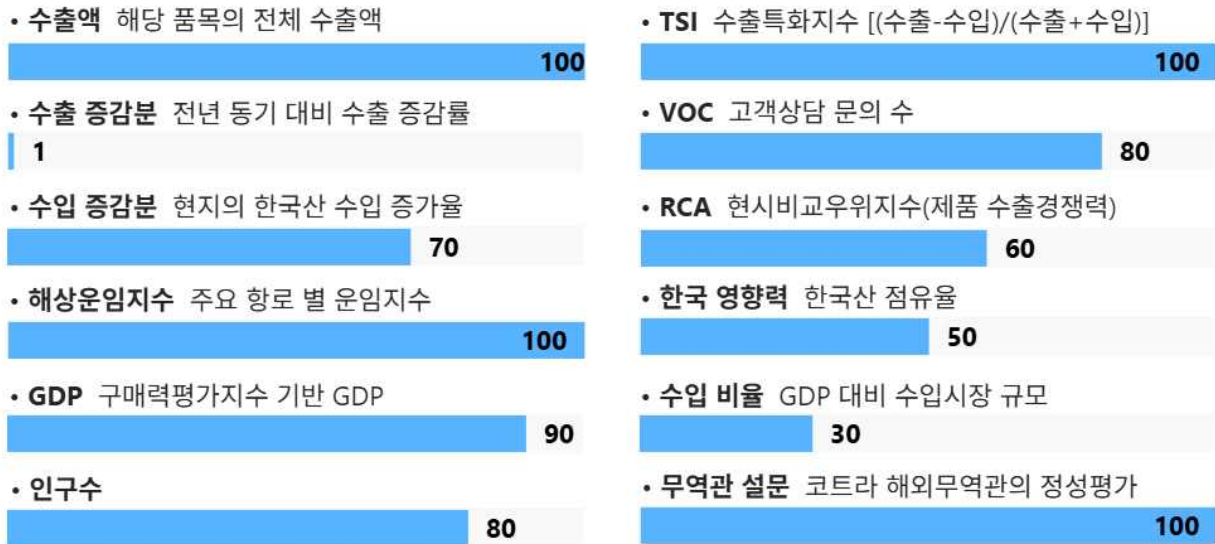
HS 870829 (차체, 그 부분품)

**HS 870829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8.85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HS 870850 (구동 차축)

HS **870850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8.29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HS 870340 (불꽃점화식 승용차)

HS **870340**의 **카자흐스탄** 수출유망지수는  
**98.29** 점으로, **높음**에 해당합니다.



HS 870840 (기어박스, 그 부분품)

**HS 870840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7.60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

HS 870332 (디젤 승용차 1,500cc~2,500cc)

**HS 870332의 카자흐스탄 수출유망지수는  
97.11 점으로, 높음에 해당합니다.**

